

보도 시점 2026. 3. 17.(화) 15:30 (2026. 3. 18.(수) 조간) 배포 2026. 3. 17.(화) 09:00

금융위 · 과기정통부, ‘K-엔비디아’ 육성 위해 머리 맞댄다.

-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과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 ‘K-엔비디아 육성 사업(프로젝트)’ 간담회 개최
-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을 활용한 인공지능 반도체 투자전략 논의 및 민관 협력 의지 결집
-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 향후 5년간 50조 원, 올 한해 10조 원의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이덕원, 이하 ‘금융위’)는 3월 17일(화) 15:30,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회장,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대표와 함께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 ‘K-엔비디아 육성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리벨리온, 퓨리오사인공지능, 하이퍼엑셀, 딥엑스, 모빌린트

간담회 개최 배경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미래상(비전) 아래,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기반(인프라)인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상황이며,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막대한 전력 소비량과 운용 비용 등으로 인해 폭발적인 인공지능 서비스 수요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추론 시장에 발맞춰 저전력·저비용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중심으로 단기에 집중 육성하는 한편, 미래 시장을 선도할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25.12.18)한 바 있다.

〈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25.12.18) 〉



또한, 과기정통부는 동 전략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의 설계와 생산을 지원하는 이른바 ‘K-엔비디아 육성’ 사업(프로젝트)을 발굴하여 금융위에 제안하였으며, 금융위는 지난 12월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 1차 초대형 사업(메가프로젝트) 7건*을 선정·발표하면서 ‘K-엔비디아 육성’ 사업(프로젝트)을 포함한 바 있다.

- * ① K-엔비디아 육성 ② 국가 인공지능컴퓨팅센터 ③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④ 전고체배터리 소재 공장 ⑤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⑥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 파운드리 ⑦ 반도체클러스터 에너지 기반(인프라) 등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금융위가 협력·논의해 온 ‘K-엔비디아 육성’ 사업(프로젝트)에 대해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을 활용한 투자 전략을 논의하고 민관의 협력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모두 발언

이날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배경훈 부총리는 “현재 세계 인공지능 시장은 그래픽 처리 장치(GPU)가 주도하고 있지만, 막대한 전력 소모와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는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라며 “인공지능 정보기술 대기업(빅테크) 기업들은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론에 특화된 차세대 신경망 처리 장치(NPU) 기술 확보 등을 향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라고 현 상황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기술 변곡점에서 우리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적 강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NPU) 산업 육성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인공지능 산업은 초기 기반(인프라) 구축 단계의 대규모 투자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의 주기적인 하드웨어 성능 향상(업그레이드), 시장 확산에 따른 단계적 규모 확장(스케일업) 투자까지 장기간의 자금 투입이 필요한 분야”라며, “금융위는 민간 자금과 연계한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을 통해 인공지능 및 반도체 분야에 향후 5년간 50조 원 규모로, 올 한해에만 약 10조 원 규모로 장기 인내 자본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인공지능 기업들이 시장변화와 소비자의 ‘수요(니즈, Needs)’를 빠르게 파악하여 해외 틈새시장을 파고드는 현명한 전략가(스마트 전략가, Smart Strategist)의 자세로 세계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였다.

간담회 주요 내용

이날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생태계 및 저전력·고효율의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NPU)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발표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사고체계(패러다임)가 범용성에서 효율성(저전력, 저비용)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내 신경망 처리 장치(NPU) 기술 혁신이 세계 시장 주도권 확보라는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과의 연계를 통한 집중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K-엔비디아 육성’, ‘국가 인공지능컴퓨팅센터 건립’ 뿐만 아니라,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 생태계 구축’, ‘공공·산업 인공지능 전환(AX) 가속’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산업계 및 금융위와 협력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후속 초대형 사업(메가프로젝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향후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의 전반적인 운용 방안과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자금 투자의 필요성과 지원전략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금융위는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국내 인공지능 기업들이 세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초기 기반(인프라) 구축 단계, 운영 단계, 유지 단계별 투자전략과 함께 올해 인공지능 및 반도체 분야에 총 10조 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동 자금이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금융위는 K-엔비디아 육성과 국가 인공지능컴퓨팅센터 건립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분야 후속 초대형 사업(메가프로젝트)을 산업계, 과기정통부와 협력하여 적극 발굴할 예정임을 강조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대표들은 초저전력·고성능 차세대 신경망 처리 장치(NPU) 제품 기술개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소개하며 그래픽 처리 장치 중심으로 재편된 세계 인공지능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였다.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 재원이 적기에 마련된다면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신경망 처리 장치(NPU) 제품의 양산 시점을 획기적으로 앞당겨 세계 시장 진출의 황금 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성장 기금(국민성장펀드)을 통한 대규모 투자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였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전략 분야로,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자금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그간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에 대한 초기 직접투자와 지속적인 후속 투자를 통해 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 수단을 활용하여 유망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펌리스·파운드리·패키징에 이르기까지 가치 사슬(밸류체인) 전반을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 마무리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그 성과를 민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라며, “K-엔비디아 육성,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센터 구축 등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적기에 공급해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2차 초대형 사업(메가 프로젝트)을 발굴하면, 관련 투자 심사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배경훈 부총리는 “인공지능 정책과 금융이 톱니바퀴처럼 긴밀히 맞물릴 때, 비로소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거대한 엔진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 선점의 황금 시간(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가 한 팀이 되어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K-엔비디아 육성을 시작으로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센터 구축, 독파모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육성,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등 지속적인 초대형 사업(메가프로젝트) 투자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 K엔비디아 육성 사업(프로젝트)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안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 기반과	책임자	과장	정건영 (044-202-6240)
		담당자	사무관	심향섭 (044-202-6244)
	금융위원회 첨단 산업 1과	책임자	과장	최윤석 (02-2224-2030)
		담당자	사무관	강성혜 (02-2224-2034)
	산업은행 국민 성장 펀드 부문	책임자	국장	김정구 (02-787-5001)
		담당자	팀장	이 정 (02-787-5002)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 삶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지척브리핑



□ 개 요

-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인공지능 반도체 투자전략을 논의하고 민관의 협력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 간담회 개최(안)

- 일시/장소 : '26.3.17(화) 15:30~17:00(90')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 참석자 : (정부) 부총리, 금융위원장
(공공 민간) 한국산업은행 회장,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5개社* 대표
* 퓨리오사인공지능社, 리벨리온社, 딥엑스社, 하이퍼엑셀社, 모빌린트社
- 주요 논의내용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
 - (금융위) 인공지능 분야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 (산업계)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기업별 향후 기술개발 로드맵

□ 세부 일정(안)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5:30~15:35	5'	○ 기념 촬영	참석자 전체
15:35~15:45	10'	○ 인사 말씀	-
15:45~15:50	5'	○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15:50~15:55	5'	○ 인공지능 분야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15:55~16:50	55'	○ 기업별 기술개발 로드맵 설명 및 자유토론	5개社 기업 대표 참석자 전체
16:50~17:00	10'	○ 마무리 말씀	-

※ 언론 공개